

남북 분단 시절 한국교회의 사회윤리학적 성찰

주도홍(백석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II. 교회와 통일을 위한 노력

1.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
2. 특별한 유대관계
3. 실천적 대화
4. 사회주의 속의 교회

III. 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

1. 루터출생 500주년 기념대회
2. 실질적 준비와 행사 진행
3. 역사적 결과
4. 역사적 평가
5. 요구되는 윤리적 실천

IV. 맺음말

• ABSTRACT •

A meeting between atheistic socialism and theistic Christianity is difficult, but it is not impossible. The key is to exercise the Christian ethic of love for one's enemy and consequently move the atheist. This method, through the employment of Christian ethics, is effective in its ability to allow understanding to occur between the two parties. This type of occurrence is non other than a meeting with atheists through Christian Diaconia. Even under communist rule, the former Eastern block hosted large Christian rallies. Hungary's Budapest was a host to the Lutheran Church's world-wide conference and East Germany hosted huge celebratory events, with outside guests, in commemoration of the 500th anniversary of the Reformer Luther's birth. These episodes are memorable and momentous events that occurred under atheist communist control. This paper investigates how such events were made possible and addresses the appropriate history lessons that should be taken away. Afterwards, the issue of how the Korean Church should approach the matter of the upcoming Pyongyang rally is addressed. Particularly, the manner in which the German Church engaged East Germany in Diaconia(service) is historically explored and applied. How the Christian ethic of love was made specific and tangible is additionally investigated. In other words, the type of approach and philosophy that is appropriate in dealings with socialism, in accordance to God's love as was given by Christ on the cross, will be attempted to make clear. The research will primarily consist of a practical investigation into one of today's most salient issues, that is, in what manner and in accordance to what ethics the Korean Church should approach the 2007 Pyongyang Rally, the Church's 100 year anniversary of the great revival. In turn, the hope is to envision a socially ethical philosophy for the Korean Church's expression of Diaconia.

Keywords: diaconia, Korean Church, atheist, ethics, Pyongyang Rally

I. 들어가는 말

무신론주의 북한과 유신론주의 기독교와는 과연 만날 수 있을까? 보다 전문적으로 말하여, 분단 한반도의 차갑게 부딪히는 양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기독교 사회윤리는 과연 그 무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대부흥 100주년 기념 ‘2007년 평양 대집회’는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 이 평양집회가 성사된다면 이는 정치와 경제를 총망라해 한반도 분단 사상 최고의 성과라 하겠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역사의 교훈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과거 공산주의 치하 동구에서 이러한 일들이 성사되었다. 한 예로, 서독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루터 출생 500주년 기념 대회를 1983년 동독에서 성대히 거행하였다. 35개국에서 20만 명의 기독교인 사절단이 동독에 입국비자를 받고 들어가 2주 동안 집회와 행사를 진행하였다. 말이 20만 명이지 작은 땅 동독에서 이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루터의 유산을 찾아 그들은 집회와 행사를 그리고 관광을 해야 했으며, 어디에서든지 숙박을 해야 했으며, 동독주민과 어떤 식으로든지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이는 무신론주의 동독정권에게 거대한 모험이며, 참으로 엄청난 일이었다.¹⁾ 본론에서 더 언급할 것이지만, 결과 동서독의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고, 1990년 통일의 기초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연 어떻게 이러한 일이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반동분자’, ‘배신자’로 낙인찍힌 신앙의 아버지 루터 기념대회를 그토록 성대하게 국제적으로 치를 수 있었을까 살펴볼 것이다. 그런 후, 그 역사에서 오늘 한국교회가 바라는 남북집회를 위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곧, 어떻게 디아코니아의 사역이 공산권에서 대형 기독교집회를 가능하게 했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 교훈을 분단 하 한국교회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길 기대한다. 탁월한 기독교의 사회 윤리가 무신론주의 공산주의와 유신론주의 기독교사이에 튼튼한 연결고리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향한 독일통일을 향한 길을 닦았다.²⁾

II. 교회와 통일을 위한 노력

1.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

얼마 전 까지도 “평양대부흥 기념대회 평양서 연다.”는 대문짝만한 신문 뉴스들이 기독교 신문들과 인터넷을 위시한 매스컴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2007년 7월 8일 서울 상암경기장에서 평양대부흥 기념대회를 개최하고, 연이어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봉수교회에서 열기로 했다며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 소속 24개 교단 총회장, 총무들과 한기총 교회협 대표들은 ‘2007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통해 지난 2월 27일, 28일 양일간 회의를 갖고 이같은 소식을 언론에 발표하였다. 당시 교단장협 공동의장 J 목사는 “한기총과 교회협 그리고 24개 교단들이 한 마음으로 평양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 행사를 통해 한국교회가 제2의 부흥과

1) 참조. Erich Kellner(편), *Christentum und Marxismus - Heute*, (Wien, 1966).

2) 주도홍, 「독일통일에 기여한 독일교회이야기」, (CLC, 1999); 주도홍, 「통일 그 이후」(IVP, 2006).

갱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바로 얼마 후 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거리가 매스컴에 실렸다. 북한의 조선그리스도연맹이 한국교회의 약속 불이행으로 북한 사회에서 신용이 추락했다면서 교단장협의회가 평양 봉수교회 준공에 맞춰 제안한 평양대부흥 기념대회의 건에 확답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초 남한 교회가 유경체육관에서 평양집회를 제안하며 북한에 심장병원 건립을 약속했지만 결국 무산되어 북한 내에서 조그런의 신용도가 말할 수 없이 추락했다는 이유였다. 한 마디로 남한교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우리도 평양집회에 대한 약속을 확답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 2006년 조그런과 평양국제 대성회 개최를 합의한 「우리민족교류협의회」 북방선교회는 한국교회대부흥100주년기념사업회가 북한과의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한 발표를 했다고 지적하며, 분단 이후 최초의 평양 대규모집회가 무산될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 알고 보니, 한국교회대부흥100주년기념사업회도 북한의 사전 확답도 받지 않은 채 평양대성회를 성급하게 발표했던 것이다. 결국 교류협의회 측도 ‘북측의 단호한 거부’를 확인하며 100주년 기념성회를 포기하고, 10월 경 순수한 민족간 교류활동으로 대규모문화공연을 겸한 ‘우리민족 한 마당 평양국제대회’ 추진하기에 이르렀다.³⁾

2. 공든 탑이 무너지라

“공든 탑이 무너지라”는 속담이 있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린 일은 어렵더라도 그 결실을 본다는 속담일 것이다. 과연 한국교회가 분단 62년 동안 어떤 공을 들였을까? 무신론주의 북한에게 이러한 엄청난 집회허가를 요청할 수 있는 공을 들였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러한 신뢰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말인지 궁금하다. 사실 몇 년 전부터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1907 어게인’은 100주년이 되는 2007년이 다가오면서 그 열기가 식어가는 감이 없지 않았다. 각 교단, 각 기독교단체마다 다투어 행사를 계획하고 2007년이 되면 엄청난 일들이 여기저기서 사정없이 벌어질 것 같더니, 2007년 1월에는 ‘대부흥 100주년 기념행사를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치루자’고 교단장협의회가 제안하였다. 마음이 급해진 24개 교단 교단장과 총무들과 한기총과 교회협은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하루 서울집회와 이틀간의 평양 연합집회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로써 서로 경쟁하듯 뿔내고 개최하려던 그 엄청난 대부흥(?) 집회의 꿈은 일순간에 거품처럼 수그러들고 만 것이다. 교단장들의 바로 얼마 전까지의 대형집회를 향한 떠벌림은 바라보는 이들에겐 내심 걱정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지만, 단 삼일간의 연합집회로 그런대로 당사자들은 체면은 차릴 수 있었다고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안도의 한숨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 바로 들려오는 소식은 그 삼일 연합집회 중 이틀 평양집회는 전혀 근거도 없이 발표 했다는 것이다. 한기총, 교회협 그리고 24개 교단장과 총무는 한국교회 대부흥운동 100주년 평양기념집회를 당사자인 북측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발표했던 것이다. 사실, 필자는 처음부터 ‘어떻게 이런 대형집회가 북한에서 가능하다는 말인가’ 기뻐하면서도 의아했다. 분단 하 독일교회 역사를 놓고 볼 때 평양에서의 대형집회를 한국교회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⁴⁾

3) 「기독신문」(2007.2.28, 3.14); 「기독교연합신문」(2007.2.4, 3.11, 3.18); 「국민일보」(2007.3.15)

4) 물론 체육관이나 폐쇄된 공간에서 북한 주민과 상관없이, 또는 몇몇 동원된 북한 사람들과 남측에서 올라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주년 기념집회를 평양이라는 장소를 세우고 빌려 개최하는 것을 가정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결코 이런 식의 평양집회를 계획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 100만 명이 모이는

독일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서독교회는 어려움에 처한 동독의 동족과 ‘사회주의 속의 교회’를 갖은 인내와 사랑으로 분단 시절 내내 꾸준히 도왔다. 동서독 간 정치의 찬바람이 매몰차게 불어도 동독을 향한 서독교회의 사랑은 한결같았다. 서독교회의 사랑에 대한 동독 측의 감사와 보은이 전혀 성에 차지 않아도, 도리어 불만과 억지를 내세워도, 아니 배신감이 들 정도로 거꾸로 행동을 해도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에 서독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순종하였다. 특히 ‘디아코니아 재단’(Das Diakonische Werk)을 동독에 상주시키면서 서독교회는 형제사랑을 동독정권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힘 있게 실천하였다. 물론 이러한 서독교회의 형제사랑에 한국에서처럼 반대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다. 그렇지만, 서독교회는 예수 사랑의 섬김의 신학 위에 서서 성육신의 형제사랑을 분단 하 묵묵히 확고한 신념을 갖고 실행해 였다. ‘배고픈 자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라’는 주의 명령을 잊지 않았다. 몇 가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서독교회는 동독을 도왔다. 첫째, 명목 있는 도움으로 상대의 자존심을 지켰다. 겸손한 사랑만이 성공할 수 있음을 알았다. 둘째, 그리스도의 사랑에 입각한 확고한 철학과 순수한 지원 원칙을 지켰다. 셋째, 지원의 다양성과 대담성을 잊지 않았다. 수요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 했다. 넷째, 서독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합법적으로 그리고 몇몇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이런 결과 서독교회는 동독 정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한 마디로, 서독교회는 ‘섬김의 신학(Diakonische Theologie)’을 근거로 ‘실천적 대화(Praktischer Dialog)’를 공산정권과 했으며, 늘 ‘특별한 유대관계(Besondere Gemeinschaft)’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별한 유대관계’ 역시 분명한 원칙 하에서 유지되었다. 첫째, 수직적 차원이 없는 단순한 사회윤리가 아님, 둘째, 사회주의 속에서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님, 셋째, 현실적으로 활용되는 하나의 신학 형태도 아님, 넷째, 마르크스주의의 메카니즘 속에 젖게 하는 하나의 철학도 아님, 다섯째, 신학적 논증을 통하여 마르크스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려는 듯한 그러한 신학도 아님, 여섯째, 마르크스주의와 기독교신학의 혼합도 아님을 분명히 한다. “섬기러 오신 …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통치를 이러한 섬김을 통하여 구체화하셨던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 가장 큰 섬김이야말로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으며, 교회의 섬김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출발되는 것”임을 근거로 하여 ‘섬김의 신학’은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이어야 함을 요청한다.⁵⁾

3. 실천적 대화

‘섬김의 신학’을 ‘사회주의 속의 교회’로서 실천하였던 헝가리교회의 감독 칼디(Zoltan Kaldy)는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이 아닙니다.”는 고백을 하며 한국교회가 귀 기울여야 할 ‘실천적 대화’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 말로만이 아닌 눈에 보이게 제시되는 실천이 있는 대화를 공산주의자들과 계속할 때 그들은 교회를 향한 변화된 태도를 보였고, 결국 ‘사회주의 속에서 교회’가 원하는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는 말이다. 대형집회까지도 가능할 수 있었다.

빌리 그래햄 식의 집회 또는 엑스포로 74식의 여의도 대형집회를 상상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더더욱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5) 주도홍, 「독일통일에 기여한 독일교회이야기」, 30-35; 참조 주도홍, 「통일 그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단지 실천적 대화(nur praktischer Dialog)가 가능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속한 사회의 변형을 위해서 그 무언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찾았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 시민의 변형을 위해서 문화 영역에서, 평화를 위한 일들 가운데서 그리고 인간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일일 때 함께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소위 말하는 실질적 대화였습니다. 이러한 대화가 참으로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실질적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확실히 양편은 서로를 향해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들을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이 말은 신학에 대한 수정을 또는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대한 수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신학에 의해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바꾸지도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향해 자신들이 가졌던 생각을 대폭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⁶⁾

칼디의 고백은 계속된다. 한국교회가 바라는 대부흥운동 100주년 평양집회와 같은 구동구권에서의 집회가 사회주의 공산정권의 허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섬김의 신학’을 근거로 한 오랜 ‘실천적 대화’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말이다.

저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놀라운 것은, 헝가리 인민공화국 같은 하나의 사회주의 국가가 우리 헝가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 루터교회 연맹 국제 집회를 부다페스트로 초청할 수 있게 허락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헝가리에서 국가와 교회 사이에 형성된 좋은 관계가 맺힌 하나의 열매인 것입니다.⁷⁾

4. 사회주의 속의 교회

‘사회주의 속의 교회’(Kirche im Sozialismus)란⁸⁾ 동독을 위시해 과거 동유럽 공산 치하 존재했던 교회를 일컫는 말이다. 교회들이 교회다움을 잃지 않고 어떻게 공산 치하에서 존재할 수 있었으며, 결국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무신론주의 정권과 바른 관계를 가졌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남한의 교회가 무신론주의 유물론의 북한 정권과 어쩔 수 없이 관계를 가질 때 교훈을 준다. ‘사회주의 속의 교회’는 1958년 헝가리교회 감독 칼디에 의해, 또는 1969년 동독교회의 한스 지겐바쎄(Hans Siegenwasser)에 의해 처음으로 일컬어지기 시작하여, 1970년대, 80년대 약 20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되었던 용어이다. 이후 동독에서는 ‘사회주의 속의 교회’라는 용어가 가져올 수 있는 오해 때문에 ‘동독교회’라는 말로 바꾸어 일컫기도 하였다.⁹⁾ ‘사회주의 속의 교회’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묶어주는 연결고리’라는 의미로 동독교회의 자기이해에 근거한 특별한 개념이다. 1968년 당시 동독 튀링엔 지방의 프로테스탄트교회 감독이었던 미첸하임(Mitzenheim)은 ‘사회주의 속의 교회’를, 사회주의를 대적하는 교회가 아닌 동독에 살아가는 시민들을 위한 교회로서, 사회주의 체제 속에 살아가면서도 병들지 않은 양심을 가진 크리스천들의 공동

6) 주도홍, 「독일통일에 기여한 독일교회이야기」, 32-33. 재인용.

7) Ibid., 35. 재인용.

8) 참조. Ibid., 37-65: “사회주의 속의 교회”; 요한네스 발만, 오영옥 옮김, 「종교개혁 이후의 독일교회사」, (대한기독교서회, 2006), 353-357: ‘사회주의 속의 교회’.

9) 요한네스 발만, 상계서, 356.

체라고 정의하였다. 동독 출신 저명한 신학자 융엘(E. Juengel)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사회주의 속의 교회’를 향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오해를 국가와 교회의 분리원칙을 들어 차단한다. 그러니까 무신론주의 정권 하에서도 교회가 독자적인 길을 감으로써 “사회주의 국가와 그 입장을 같이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시련의 시절을 극복하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였다는 말이다.¹⁰⁾ 물론 이런 시절 잘못된 길을 걸어간 교회지도자들이 없지 않았음을 융엘은 부정하지 않는다.¹¹⁾

1968년 ‘사회주의 속의 교회’였던 동독교회는 어려운 시절 나치 하 독일교회(DC)의 변절과 그 불행을 반복하지 않으려, 1934년 「바르멘 신학선언」(Barmer Theologische Erklarung)을 가져와 “바르멘의 첫 번째 고백교회의 총회에서 합의한 결정”을 따르고자 하였을 뿐 아니라,¹²⁾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회주의 속에서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1963년 “교회의 자유와 사역에 관한 10가지 논제”(Zehn Artikel ueber Freiheit und Dienst der Kirche)를 발표하였다. 복음 선포의 사명, 신앙과 순종의 생활, 화목과 평화, 세속정부, 교회의 생활과 섬김, 교회의 소망 등의 10가지 선언은 교회가 사회주의 속에 존재하면서도 결코 정치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교회다움의 가야할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고백을 근거로 하여, 그 어느 시대나 공통적으로 유효한 내용을 품고 있는 “교회적, 신학적 선언이며, 영적, 신학적 가르침”이라는 것이다.¹³⁾

결국 ‘사회주의 속의 교회’는 세 가지 면에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교회가 처한 현상이 무신론주의 사회주의 속임을 현상학적으로 밝히며(Ortsbestimmung), 둘째, 교회가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잃지 않음을 해석학적으로 제시하며(Situationsbestimmung), 셋째, 교회의 과업을 인식한 교회, 곧 자기사명에서 제시된 개념으로(Auftragsbestimmung) 이해한다.¹⁴⁾

Ⅲ. 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

1. 루터출생 500주년 기념대회

1983년 11월 공산치하 동독에서 종교개혁자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의 출생 500주년을 맞아 성대한 국제대회가 약 2주간에 걸쳐 개최되었다. 독일의 보름스와 같은 루터의 역사의 현장이 서독에도 있지만, 루터의 유산과 역사현장이 거의 대부분 동독 지

10) 주도홍, 「독일통일에 기여한 독일교회이야기」, 39. “이 원칙과 함께 교회는 잠시라도 사회주의 국가와 함께 그 입장을 같이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교회는 이러한 국가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현장을,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율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 국가 역시도 긍정하였는데, 그 긍정이란 교회 스스로가 어떠한 입장에서든지 독자적 공동체로서 그리고 조직체로서 이 국가와는 구별됨을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

11) Ibid., 65. “역시 사회주의 속에서도 프로테스탄트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말할 수 있었던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 … 물론 국가 안기부와 협력한 반성하고 공격받을 만한 교회의 지도자들도 분명 없진 않았지만, 사회주의 속의 교회는 바벨론적 포로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다.”

12) Ibid., 40-43.

13) Ibid., 43-44.

14) Ibid., 63-65; 참조. G. Besier, *Der SED-Staat und Kirche, 1969-1990. Die Vision vom 》Dritten Weg* 《(Berlin, 1995); Frederic Hartweg(편), *SED und Kirche. Eine Dokumentation ihrer Beziehungen*. Bd. 2: SED 1968-1989(Neukirchen, 1995).

역에 위치하였다. 루터 기념 국제대회에 참여한 인원은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를 위시한 35개국에서 모여든 외국 크리스천 사절단 20만 명을 선두로 엄청난 인원이었다.¹⁵⁾ 이 신앙적 국제대회를 위해 당사자인 동독정권, 동독교회가 주도권을 가져야했고, 아울러 서독교회, 서독정부의 적극적 참여와 재정적 도움이 있어야 했으며, 그리고 세계교회의 뜨거운 호응과 참여가 역시 요구되었다. 먼저 20만 명의 사절단이 2주 동안 머물 숙소를 해결해야 했으며, 거의 반세기 동안 방치되던 루터의 유적들을 보수하고 다듬어야 했다. 여러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야 했으며, 동독 주민들과 외국 크리스천 사절들과의 만남이 가져올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독 정부는 세심하게 방어하며 준비해야 했다. 물론 사전준비는 동독 공산정권만의 업무는 아니었고, 이를 위해 더욱 많은 역할을 서독교회, 서독정부가 최선을 다해 감당하였다. 엄격하게 말해 행사기간동안 혹시나 대두될 반체제 저항들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요사태 등을 향한 동독정권의 불안과 조바심을 서독정부는 미리 헤아려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를 하여야 했다.¹⁶⁾ 동독정권은 이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를 교회에 요청하였는데, 교회가 추구하는 평화운동에 동참할 것, 정치적 문제에는 개입하지 말 것, 종교적 관심에 집중할 것, 교회는 철저하게 자체단속을 해 줄 것 등이었다. 동독교회도 세 가지 면에서 함께 보조를 맞추었는데, 국가 이익에 일치하며, 국가 정치에 협조하고, 다른 장애들이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기념대회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¹⁷⁾

과연 무신론주의 사회주의 동독 정권은 어떠한 목적으로 이 엄청난 영적 대회를 허락하였는가? 동독정권 당국의 이 대회를 향한 정치적 추구하고 동독교회, 서독교회, 서독정부 그리고 세계교회의 보다 신앙적 목적은 근원적으로 달랐다. 그렇다고 동독당국이 또한 서독측이 그러한 전혀 상이한 목적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동독당국이 가졌던 목적은 다섯 가지로 공개되었다. 첫째, 루터를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역사 전진적 인물로 인정하고 보존하며 역사적 유산의 확산을 돕는다. 둘째, 독일사의 전통을 추구함과 세계사적 사상논쟁에 있어서 독특한 위치를 갖는다. 셋째, 비록 다른 세계관과 신앙을 가졌을지라도 역사적 활동 그 자체를 평가한다. 넷째, 세계에 동독의 정책이 얼마나 인도주의적이며, 평화를 사랑하는지를 확인시킨다. 다섯째, 종교개혁, 농민전쟁 그리고 독일초기 민중 혁명에 관해 유물사관에 입각한 역사연구의 탁월성을 세계 학회에 과시한다.¹⁸⁾

동독교회, 서독교회, 세계교회가 가졌던 목적은 서로 간 상당 부분 상이한 면도 없지 않았다. 물론 그들은 우선 순수한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였음을 당시 발표된 각자의 입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마르틴 루터를 위대한 한 사람으로서 가치부여를 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업적들을 사람들에게 가까이 그리고 모든 교회적 사업의 중앙에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 업적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복음 가운데 있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동독교회) “동독정부에 의해 제시된 루터 이해에 높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5) 요한네스 발만, 상게서, 358; 주도홍, 「독일통일에 기여한 독일교회이야기」, 95.

16) G. Besier, *Der SED-Staat und Kirche, 1969-1990. Die Vision vom «Dritten Weg, 376:»* “우리는 교회가 법을 철저히 지킬 것을 함께 인식하며 기뻐하는 바입니다. 국가 정치에 반하는 행위들과 동독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 어떠한 일일지라도 교회 스스로가 막아야 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 주도홍, 「독일통일에 기여한 독일교회이야기」, 123.

18) Frederic Hartweg(편), *SED und Kirche. Eine Dokumentation ihrer Beziehungen.* Bd. 2: SED 1968-1989, 411-412.

다. 그 시대에 있어서 루터가 조명된 것으로 생각합니다.”(서독교회) “그(루터)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는 여기에 함께 모여 루터를 기념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루터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아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WCC)

서독의 독일교회연합(EKD)도 적극적으로 나름대로의 지침을 가지고 루터기념대회를 준비하였다. 첫째, 루터이해를 향한 두드러진 차이점들에 대한 논쟁을 삼간다. 둘째, 루터의 해를 통해 주어진 기회를 결코 헛되이 놓치지 않는다. 셋째, 그 어떤 경우라도 행사 진행에 있어서 경쟁관계를 보여주지 않는다. 사려 깊은 처사라 할 수 있는데, 마르크스주의적 루터이해를 염두에 두어야 했으며, 루터의 해를 맞아 동서독의 긴장완화 내지는 서로를 보다 더 가까이 이해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동서독교회는 다른 면에서는 분명 선교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동독교회가 당시 가졌던 두 가지 추구는, 동독에서의 교회생활의 활성화, 교회의 태두리를 벗어나 교회의 실체를 알림과 동시에 세상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다.

2. 실질적 준비와 행사 진행

실질적 준비는 동독정부, 동독교회, 서독교회, 서독정부 그리고 세계 「루터교연맹」이 1979년부터 1983년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하였다. 동독정부는 공산당 총서기장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가 「마르틴 루터 위원회」(Martin-Luther-Komitee)의 위원장이 되어 모든 준비를 지휘하였다. 우선적으로 무신론주의의 동독정권이 ‘배신자’ 내지 ‘반동’으로서의 루터를 향한 지금까지의 마르크스-레닌주의 해석을 루터 기념대회를 정당화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왜 동독 정권이 루터 기념대회를 개최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제시해야만 했다. 이는 새로운 루터해석의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¹⁹⁾ 또한 수십만 명의 국내외 손님들의 숙박문제, 비텐베르크(Wittenberg), 아이스레벤(Eisleben), 에어푸르트(Erfurt), 바르트부르크(Wartburg) 지역 등에 거의 방치되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던 가옥들, 예배당, 수도원, 대학건물들, 동상, 성(城) 등의 루터의 유적지 수리 및 복구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했다. 이런 점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는 쪽은 말할 것도 없이 동독정권이었지만, 문제는 이에 소요되는 엄청난 경비를 동독정권은 감당할 수 없고 가난한 동독교회는 말할 것도 없었다.

세계 「루터교 연맹」, 서독교회가 그리고 서독정부가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였다. 서독정부가 1983년 6월 29일 루터 기념대회를 준비하면서 동독정부에 서독정부의 보증으로 차관으로 주기로 약속한 금액은 10억 마르크(당시 약 8000천억 원)였다.²⁰⁾ 동독에 상주하고 있던 「디아코니아 재단」의 실질적 활약 역시 두드러졌다. 또한 동독교회는 루터의 전 생애를 향한²¹⁾ 보다 열려지고 활발해진 루터연구를 기해 거의 40년 동안 생소하다시피 되어버린 루터의 글들을 새롭게 펴내는 일을 착수하게 되었다. 루터전집을 발간하며,

19) 주도홍, 「독일통일에 기여한 독일교회이야기」, 96-106. “종교개혁은 사회적, 민족적, 정치적, 종교적 동기들과 상관지어지고, … 초기 민중 혁명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제공하였다. … 그럼에도 그의 진취적 역할은 한계를 갖는데 … 루터 스스로가 당시 농민전쟁에 참여했던 민중을 거부해 버렸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루터야말로 독일의 시성(詩聖) 괴테 이전 독일어의 최대의 거장 중 한 사람이며, 칸트 이전 가장 의미 있는 윤리가 중의 한 사람이다.”(101)

20) Ibid., 132.

21) 지금까지는 루터의 전 생애를 다루는 일은 제약을 받았다. 1525년 농민전쟁을 기해 루터가 민중을 ‘배신’하였다고 보기에 그 이후의 생애에 대한 전기적 기록 내지 긍정적 평가는 공산정권 하에서 쉽지 않았다.

루터의 전 생애를 다루는 전기를 펴내며, 루터의 생의 업적들과 현장들을 향한 역사적 연구를 진행하며, 루터의 역사적 영향을 추적하고, 루터의 사상과 업적들을 현실에서 구체화하고자 하였다.²²⁾ 아울러 수많은 기념대회, 학술대회 그리고 대중 집회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했다. 그러는 가운데, 동독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는데, 1970년부터 적용해 오던 집회행사 법을 새롭게 수정하였다. “전적으로 종교적 성격을 띤 집회들은 지금까지의 원칙적 신고의무에서 면죄”되며, 집회에 모인 인원수를 점검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문화재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새로운 루터 유적의 수리와 복구를 위해 요구되는 것이었다. 동서독 간에는 1982년 12월 2일 새로운 문화협약이 이뤄졌다.²³⁾ 이러한 준비와 노력으로 루터 출생 500주년 기념대회는 1983년 2월 18일 루터의 사망일에 아이스레벤의 출생 본가가 수리를 거친 후 비로소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기념대회의 막이 올라, 여러 행사와 집회를 거행하였고, 루터의 출생일인 1983년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아이스레벤과 라이프치히에서 35개국에서 찾아온 손님들과 함께 성대하고 성공적인 기념대회를 개최한 후, 피날레를 축제의 코이노니아로 장식하며 루터 기념대회의 모든 행사가 막을 내렸다. 이러한 행사는 서독을 위시한 세계에 TV로 생중계되기도 하였다.²⁴⁾

3. 역사적 결과

‘사회주의 속의 교회’였던 동독교회는 이제까지의 움츠러들어 기를 펴지 못하던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 입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게 되었다. 어렵지만, 교회다움을 잃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1984년 동독교회 총회의 평가는 이를 입증하고 있다.²⁵⁾ 동독정권 역시 루터 기념대회를 계기로 하여, 교회를 향한 보다 큰 신뢰를 형성하게 되었으므로, 서로 선한 의지와 존경을 주고받으면서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자는 요청을 1985년 2월 11일 동독 총서기장 호네커가 하였다.²⁶⁾ 그 외에도 동서독관계의 진전 등을 포함한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닫힌 사회였던 동독과 더불어 긍정적으로 형성되었음을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였다. 독일 통일의 초석을 놓았던 1989년 독일 라이프치히 니콜라이교회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져간 촛불기도회는 독일통일에 있어서 독일교회의 확실한 역할을 입증하였다. 그들은 국가를 위해 기도하며 평화시위와 함께 구호를 외쳤다. “언론의 자유를 달라!” 그리고 “여행의 자유를 달라!”고. 사실 언론의 자유란 공산치하 동독에서는 분명 새로운 요청이었다. 1989년 10월 9일을 역사는 독일통일에 있어 결정적 ‘전환’(Wende)을 이룬 시점으로 보는데, 라이프치히를 위시한 동독의 다른 도시에서 더 이상 동독 경찰이 시민운동에 아무 제재도 할 수 없게 된 시점이기 때문이다.

22) Joachim Rogge, “Luther-Forschung und literarische Vorhaben in der DDR im Blick auf das Gedenkjahr 1983”, in: Heinz Blauert(편), *Die Zeichen der Zeit. Evangelische Monatsschrift fuer Mitarbeiter der Kirche*(36. Jahrgang), 1982, 101-104.

23) 주도홍, 「독일통일에 기여한 독일교회이야기」, 130-131.

24) 요한네스 발만, 358.

25) G. Besier, 513. “총회 대다수의 결정은 ... 사회주의 속에 존재하는 교회가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국가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보다 더 열린 자세를 견지하자는 의견에 일치해 보였다. ... 특이한 것은 지금까지 결코 한번도 이러한 교회의 선명한 입장 표명이 이루어진 때가 없었으며, 교회 지도자 회의에서 그러한 원리적 입장이 그토록 관대하게, 완전히 하나의 목소리로 일치된 때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이다.”

26) Ibid., 519, 520.

결국 1989년 11월 9일 동독의 국경이 열리기 시작했으며, 1990년 10월 3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독일통일은 무거웠던 장벽을 무너뜨리며 찾아왔다.²⁷⁾

4. 역사적 평가

두 독일교회는 1990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독일의 로쿰(Loccum)에 모여 분단 하 독일교회가 유지했던 ‘특별한 유대관계’에 대해 그 의미를, “분단된 독일 민족을 묶어주는 하나의 힘 있는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그 역사적 의의를 부여하였다. 또한 서독교회의 동독을 향한 섬김을 일곱 가지로 평가하기도 한다.(Armin Volze)

동독의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었다. 동독의 외화획득에 도움을 주었다. 물자 공급은 동독의 어려운 물자 조달에 부담을 덜어 주었다. 기독교적 관계가 향상되어 정치적, 법률적 장애도 극복할 수 있었다. 동독의 교회 단체, 교회 부속병원, 양로원 그리고 기타 기관을 실질적으로 도움으로써 동족의 고통을 완화시켰다. 동독교회가 계속적으로 복음전파를 통해 동독인들의 삶에 중요한 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주의를 향한 저항 토양을 형성하게 하였다. 결국 동독 공산정권의 붕괴를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²⁸⁾

동서 분단 후 독일교회가 독일 통일에 주의 사랑과 섬김으로 전력한 점 그리고 동독교회가 사회주의 속에 존재하면서도 자제력을 잃지 않고 인내하여 결국은 니콜라이교회의 촛불기도회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실은 많은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거대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²⁹⁾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교회의 통일에 있어서 역할을 기억하며, 독일통일을 “조용한 개신교 혁명”이라고 까지 일컬어도 무리 없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³⁰⁾

5. 요구되는 윤리적 실천

동서 분단 하 독일교회의 NGO 「디아코니아 재단」을 통한 활약은 남북 분단 하 한국교회의 윤리적 실천에 많은 숙고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무신론주의 북한 정권과 기독교와의 연결고리는 다름 아닌 윤리적 현장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아가페의 사랑에 입각한 수준 높은 기독교 사회윤리를 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을 감동시키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³¹⁾ 한국교회가 ‘1907년 부흥 어게인’을 외치며 여기저기 기존의 대형집회를 옛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무언가 곁돌고 있다는 느낌이다. 특히 평양에서의 집회까지도 계획해 보지만 꿈같은 공허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다. 뜻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지만,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해 속내는 더욱 공허를 느낄 뿐이다. 한국교회의 윤리적 신뢰도는 점점 추락하고, 양적 부흥도 십 여 년 전부터 멈출 줄 모르고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³²⁾

그렇지만 최근 들어 기독교 NGO의 활동, 곧 NGO를 통한 디아코니아가 다양하며 구체적이고 활발하다. NGO 사역에의 참여를 통해 상당한 크리스천들이 사회 속에서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예수의 윤리적 선언이 조금씩 깨달

27) 주도홍, 「통일 그 이후」, 35.

28) Armin Volze, “Kirchliche Transferleistungen in die DDR”, in: *Deutschland Archiv* 1, 1991, 59-66.

29) 요한네스 발만, 361.

30) 참조. 권오성, “독일통일과 교회의 역할”, (기독교대한감리회 서부연회).

31) 조용훈, “한국교회와 반공주의”, 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12집), (선학사, 2006), 56-73.

32) 참조. 「시사저널」(2006.10.24), 34-37: “기독교는 왜 홀로 쇠퇴하고 있는가”

아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독교 NGO를 향한 확산과 활동을 위한 기독교사회윤리의 이론적 배경이 아직은 미미하고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회를 향한 한국 기독교 윤리의 천착이 이론적으로 뿐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요구된다 하겠다. 기독교 NGO는 기독교인 사회윤리의 구체화라는 관점에서 절실히 요구되며, 한국교회가 무신론주의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성경적 지혜이기도 하다.

NGO란 비정부기구 민간 주도적 목적단체로서 비이익단체인 NPO와 같은 맥락에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기독교 NGO란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세워진 비이익단체로서의 NGO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적 삶의 구체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비교회적 단체를 뜻한다. 비교회적 단체란 교회의 직접적이고 궁극적 목적인 선교를 설립목적으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표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선교와는 상관이 없다거나 교회와 관련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기독교 NGO는 선교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며, 교회의 사상적, 물적, 인적 후원을 배경으로 할 때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곧 기독교윤리를 통한 세상과 복음의 접점을 시도한다.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 NGO의 존재의미를 몇 가지 점에서 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복음의 실천 자체에 기독교 NGO의 의미가 있다. 한국교회의 설교의 약점은 윤리적 적용이 약하다는 점이다. ‘사랑하시오!’ ‘그런데 알아서 사랑하시오!’ 식이다. 분단 60년을 향한 조국의 아픔에도 이런 식의 설교가 주류이다. ‘조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런데 각자 알아서 하시오!’ 식이다. 그렇지만 기독교 NGO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 방법이 된다. 복음의 실천에 기독교 NGO는 다양한 길을 제시해 도움을 주고, 구체적인 지체로서의 역할을 찾게 한다. 고난당하는 친구와 이웃을 향한 사랑실천에 우선적 의미가 있다.

둘째, 한국 기독교의 추락한 윤리적 신뢰성 회복에 도움이 된다. 드러내놓고 하는 교회의 활동에 사람들은 일단 거부감을 보인다. 그 일의 주체인 교회를 한국사회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 분명 속셈이 다른 곳에 있을 거야. 무슨 사랑은 사랑이야? 동기가 다른 곳에 있을걸!’ 그렇지만, NGO의 활동은 동기와 목적이 분명하여 사람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다. 교회와는 상관없이 이 일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하는 크리스천들이 늘어나게 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국교회를 다르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셋째, 복음전파의 가교로서의 역할이다. 한국교회의 신뢰성의 회복은 교회의 복음전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기독교 NGO의 활동 및 이웃사랑은 종파와 신앙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사역의 주체들이 갖는 기독교세계관, 윤리, 삶과 사역의 동기는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당신들이 갖는 세계관에 대해서 듣고 싶소!’ ‘당신들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나도 알고 싶소!’ 등의 자연스런 고백을 끌어내게 된다는 말이다. 분명, 복음전파가 기독교 NGO의 목적은 아니지만, 복음전파를 위한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 NGO에 참여하는 사역자들의 투철한 복음정신, 윤리의식, 곧, 무슨 동기에서 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지 하는 분명한 자기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한다.

IV. 맺음말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향하는 한국교회의 인식은 보수와 진보의 입장차가 분명히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전향적으로 나아가고 많은 점에서도 생각이 겹치고 있다. 한국전쟁에서 얻은 쉬 아물지 않은 상처 때문에 가졌던 반공주의도 반세기가 지나면서 미움과 침묵을 깨고 부활의 복음으로 극복해야 할 일임을 한국교회는 새롭게 인식하고 있으며, 많은 점에서 고난당하는 북한 동족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어떤 종파보다도 힘써 돕고 있다.³³⁾ 그럼에도 한국교회가 이제는 더욱 체계적이고, 더욱 성숙한 신앙과 교회로서 북한을 상대할 수 있길 기대한다. 통일이 이때 올 것이다 저때 올 것이다 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성숙된 신앙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통일을 미리 맞 볼 수 있을 것이다. 분단의 휴전선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일을 미리 앞당겨 맞보는 ‘이미의 통일론’을 한국 교회는 가져야 할 것이다.

독일교회는 이데올로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명령을 가로막을 수 없음을 바로 인식하고 분단 하 성령이 주시는 인내와 사랑으로 어려운 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적 사명을 감당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다. 섬김의 신학, 실천적 대화, 성육신의 사랑으로 특별한 유대 관계를 동독과 분단 내내 유지하였다. 정치를 뒤따라 다니지 않았고, 정치를 이끌었던 독일교회였다. 정치가 막힐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화해의 복음으로 평화를 이끌어냈다. 5년간의 실질적 준비를 한 후, 결국 루터 500주년 기념대회를 통해 신앙적 국제적 축제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빛으로 분단 독일에게 방향을 제시하였다. ‘1907년 어게인’ 평양 대 성회를 계획하는 한국교회에게 독일교회의 역사는 보다 성숙한 신앙, 인내하는 사랑의 실천, 바른 그리스도적 윤리를 먼저 요구한다.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 사회윤리의 실천은 기독교 최고의 미션인 복음전파, 선교를 위한 또는 향한 가교 곧, Pre-evangelism의 역할을 감당한다. 한국교회가 ‘대 부흥 100주년 평양대회’를 개최하려 하기 전에 기독교사회윤리학적 관점에서 지금이라도 철저한 자기 개혁적 성찰이 요구된다. 과연 고난당하는 북한에게 한국교회는 어떤 존재였는지, 북한은 한국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며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에게 북한은 어떤 대상인지도 솔직히 물어 확인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오성, “독일통일과 교회의 역할”, (기독교대한감리회 서부연회).

「기독신문」(2007.2.28, 3.14).

「기독교연합신문」(2007.2.4, 3.11, 3.18).

「국민일보」(2007.3.15).

「시사저널」(2006.10.24).

33) 참조. 주도홍, “한국교회와 남북통일”, (한국장로교신학회 제10회 학술발표회, 2007. 3. 10, 자료집), 43-69.

- 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12집), (선학사, 2006).
- 요한네스 발만, 「종교개혁 이후의 독일교회사」, 오영옥 옮김, (대한기독교서회, 2006).
- 조용훈, “한국교회와 반공주의”, 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12집), (선학사, 2006), 56-73.
- 주도홍, 「독일통일에 기여한 독일교회이야기」, (CLC, 1999).
- 주도홍, 「통일 그 이후」, (IVP, 2006).
- 주도홍, “한국교회와 남북통일”, (한국장로교신학회 제10회 학술발표회, 2007.3.10, 자료집), 43-69.
- G. Besier, *Der SED-Staat und Kirche, 1969-1990. Die Vision vom 》 Dritten Weg 《* (Berlin, 1995).
- Frederic Hartweg(편), *SED und Kirche. Eine Dokumentation ihrer Beziehungen*. Bd. 2: SED 1968-1989, (Neukirchen, 1995), 411-412.
- Erich Kellner(편), *Christentum und Marxismus - Heute*, (Wien, 1966).
- Joachim Rogge, “Luther-Forschung und literarische Vorhaben in der DDR im Blick auf das Gedenkjahr 1983”, in: Heinz Blauert(편), *Die Zeichen der Zeit. Evangelische Monatsschrift fuer Mitarbeiter der Kirche*(36. Jahrgang), 1982, 101-104.
- Armin Volze, “Kirchliche Transferleistungen in die DDR”, in: *Deutschland Archiv 1*, 1991, 59-66. 1971.